경찰, 'G20' 광주회의 앞두고 매일 밤 음주단속

"봐달라" 실랑이 "못 분다" 몸싸움

휴가철 적발자 급증

지난 1일 밤 서구 치평동 한 증권사 건물 앞에서 이뤄진 음주운전 단속 현장 모습. 경찰은 오는 9월과 11월에 각각 광주와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회의', 'G20 정상회의' 등을 앞두고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2일 새벽 0시30분께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한 초등학교 앞 음주운전 단속 현장. 단속 지점 20m 전방으로 다가오던 소나타 차량이 갑자기 '윙~'하는 굉음을 내며 방향을 틀었다. 곧바로 좌측 골목으로 들어선 소나타는 거친 엔진음을 내며 단속 현장을 빠져나갔다. 의경이 뒤를 쫓았으나 차량은 이미 행방을 감춘 뒤였다.

경찰이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함에 따라 광주 도심 곳곳에서 연일 '음주운전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광주에서는 오는 11월 'G20 회의'에 앞서 오는 9월 4일부터 이틀간 '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회의'가 열린다.

광주 경찰은 세계 주요 20개국의 모임인 'G20 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해 지난 3월 계도활동을 시작으로 음주운전 등 각종 기초질서 확립에 팔을 걷어 부쳤다. 또 휴가철이 시작된 7월 이후에도 광주 전역에서 거의 매일 음주단속이 이뤄짐에 따라 음주운전 적발 건수도 급증하는 추세다.

광주 경찰이 7월 한 달간 적발한 음주운전 건수는 총 983건. 이는 1년 전인 지난해 7월(580건)에 비해 70%(403건) 늘어난 것으로, 연말 음주단속이 집중되는 지난해 12월(948건)보다 많다.

앞서 경찰은 5~6월 두 달간 광주에서만 총 1522건의 음주운전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968건)보다 57.2%나 증가한 것으로, 광주 도심 도로 곳곳에서 경찰관과 운전자간 실랑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30일 밤 10시 서구 치평동 음주단속 현장. 광주서부경찰 소속 경찰관 5명과 의경대원 7명이 단속을 시작한 지 채 30분이 지나지 않았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들이 줄줄이 적발됐다.

아파트 경비원인 박모(60)씨는 음주측정 직후 담당 경찰이 "면허증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하자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정밀측정 결과 박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40%로 훈방 수치였지만, 무면허 운전사실이 들통난 것이다.

무작정 '애교 작전'을 펼치는 음주운전자들도 눈에 띄었다. 주부 노모(여·39)씨가 같은날 밤 11시20분께 경찰에 적발됐다. 노씨는 정밀측정을 위해 봉고차를 타기 전까지 경찰관에게 애교섞인 목소리로 "소주 3잔을 마셨는데, 좀 봐달라"고 사정했다.

노씨는 자신의 간절한 애원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01%로 면허취소 수치가 나오자 이번엔 "'정지'로 낮춰 달라"며 또 한번 고집을 부렸다.

고모(35·회사원)씨는 "(술을) 딱 한 잔 마셨다"며 경찰관과 몸싸움까지 벌이다 면허가 취소된 케이스. 고씨는 1차 음주감지 때부터 "맥주 한 잔을 마셨을 뿐"이라며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완강하게 맞섰다. 그러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인 0.106%로 나오자 힘없이 고개를 떨궜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길거리 '짝퉁'이 인터넷선 '명품'

쇼핑몰 운영 42명 적발

광주지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싸게 산 루이비통 핸드백, 진품인지 따져봐야 할 것 같다.

시장이나 길거리 등에서 사들인 '가짜 명품'을 인터넷상에서 고가에 판매한 운영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기 때문이다.

광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경석)는 2일 인터넷상에서 유명 상표를 도용한 속칭 '짝퉁' 제품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유모(29)씨 등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등 총 42명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지난해 말부터 서울 동대문시장이나 길거리 상점 등에서 사들인 '짝퉁'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수배에서 열배 이상으로 부풀려 되파는 수법으로 총 수십억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유씨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50여일간 S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짝퉁' 의류 3억49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판매자들도 지난해 12월부터 불과 2~6개월새 루이비통, 샤넬 등 '짝퉁' 의류 및 액세서리 등을 팔아 각각 수천만~수억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상의 어려움을 틈타 인터넷에서 '짝퉁' 물품이 대거 판매되고 있다는 첩보를 토대로 집중 단속을 벌였다"며 "매장 위주 단속보다는 '짝퉁'을 시중에 유통시키는 사범을 뿌리 뽑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또 … 집단 성범죄

여고생 성폭행 고교생 5명 검거
여대생 성폭행한 20대 등 4명도

친구 소개로 알게 된 여고생을 집단 성폭행한 고등학생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또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대생을 유인해 집단으로 성폭행한 20대 남성 4명도 검거됐다.

광주서부경찰은 2일 여고생에게 술을 먹인 뒤 집단으로 성폭행한 광주 모 고교 3년 박모(18)군 등 고교생 5명을 특수강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5일 새벽 2시께 광주시 남구 월산동 박군의 집에서 광주 모 여고 1년 A(16)양에게 술을 먹인 뒤,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전날 밤 만난 A양에게 "집에서 함께 놀자"며 데려간 뒤 술 마시기 게임을 하다가 집단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부경찰은 또 이날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여대생을 성폭행한 김모(20)씨 등 4명을 특수강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달 26일 오후 1시께 서구 금호동 정모(20)씨의 집에서 광주 모 대학 1년 휴학생 B(여·22)씨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보험금 노린 방화 징역 3년형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조의연)는 2일 10억원대 보험금을 타기 위해 공범들에게 자신의 가게에 불을 지르도록 한 혐의(현존건조물방화치상)로 기소된 전직 보험설계사 안모(37)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안씨는 지난해 2월 광주시 북구 용봉동 S와인바 주인 김모씨와 매니저 등 3명과 짜고 보험가입금액 10억원짜리 상품에 든 뒤, 방화를 통한 보험사기극을 꾸민 혐의로 기소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헌재 "형사보상 청구 1년 제한 헌법불합치"

관련 소송 잇따를 듯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구속 및 징역기간에 대해 국가에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와 주목된다.

헌재는 2일 김모(56)씨의 광주민중항쟁 관련 형사보상 청구소송에 대한 '형사보상법 제7조의 위헌법률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위헌)대 4(헌법불합치)대 1(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형사보상법 제7조'는 국회가 2011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 조항은 형사보상의 청구기간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년'으로 규정함으로써 그동안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김씨는 1980년 7월 광주민중항쟁과 관련해 계엄령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다음해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으며, 1982년 12월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뒤 재심을 통해 1999년 무죄가 확정됐다. 김씨는 8년 뒤인 2007년 10월 국가를 상대로 941일간의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1억8000여만원) 청구 소송을 냈고, 서울고법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한편,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즉각 효력을 중지시키면 법의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개정시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존속시키는 결정을 말한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곡성서 다슬기 잡던 피서객

급류 휩쓸려 숨져

2일 오후 2시25분 곡성군 목사동면 구룡리 보성강에서 다슬기를 잡던 피서객 김모(36·울산시)씨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지난달 31일 오후 7시35분에는 담양군 용면 가마골 입구 용추교 아래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던 박모(16·전주시)군이 수영 미숙으로 물에 빠져 익사 직전 가족들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버스 기사 20여명 식중독 의심 증세

무등산 증심사 구간 운행
보건당국 역학조사 나서

광주 도심에서 무등산 증심사 구간을 운행하는 버스 기사 20여명이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2일 광주동구보건소에 따르면 수완49·지원54·봉선76번 등의 시내버스 기사 20여명이 지난달 28일 무등산 증심사 종점에 위치한 모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한 뒤 집단으로 복통·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이고 있다.

보건당국은 약물치료 중인 시내버스 기사 20명 중 증세가 심한 10명의 가검물과 식당의 음식물 및 식재료를 수거해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에 역학조사를 의뢰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도박 빚 갚으려 8차례 빈집털이

쌍나팔

○…도박판에서 진 빚을 갚기 위해 상습적으로 남의 집 담장을 넘어 금품을 턴 20대 남성이 쇠고랑.

○…2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이모(25·광산구 우산동)씨는 지난 6월 29일 밤 9시께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에 사는 김모(여·42)씨의 1층 주택에 침입해 귀금속을 몰래 가져가는 등 최근까지 8회에 걸쳐 17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

○…이씨는 도박판에서 빌린 돈 1000만원을 갚기 위해 빈집털이에 나섰는데, 경찰은 최근 많은 양의 귀금속을 내다 파는 것을 이상히 여긴 광주 모 금은방 주인의 신고로 이씨를 검거.

/이종행기자 golee@